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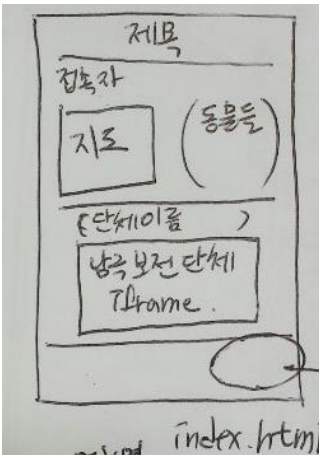
# 웹프로그래밍 첫걸음 기말고사 과제 보고서

2015442 양현서

웹사이트 주소: shabber.dothom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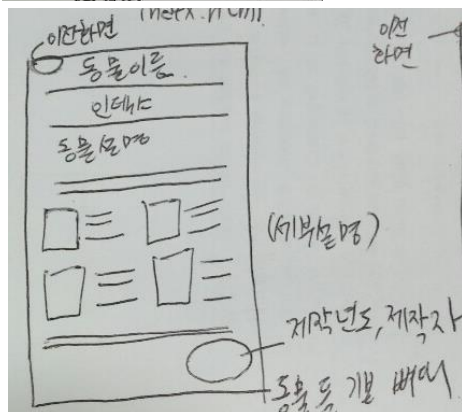
기획의도 및 타겟 방문자: 남극 생물과 남극을 보전하려 노력하는 단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웹 페이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극의 유명한 동물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세부 종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남극은 아직 많은 것들 것 베일에 쌓여 있지만, 몇 인기있는 동물들로 인해 인지도는 높습니다. 따라서 남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극의 인기있는 동물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원한다면 쉽고 빠르게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링크했습니다. 또, 남극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국외 단체들을 소개해, 남극 보호에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이트맵 및 레이아웃 디자인, 홈페이지 컨셉: 홈페이지 컨셉은 남극 생물에 대해 알려주는 도감입니다. 전체적인 색깔은 남극의 빙하와 같은 흰색, 링크가 아닌 모든 글씨를 어두운 파란색으로 작성했습니다.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적 요소로는 <hr>태그를 이용해서 내용을 구분했고, 불필요한 디자인은 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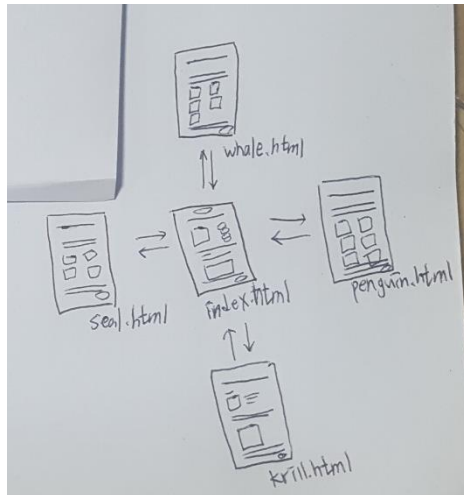
Index.html은 '제목 - 밑줄 - 접속자 - 지도 - 소개할 동물 - 밑줄 - 단체들 - 페이지출력 - 밑줄 - 작성 년월과 작성자'의 순서대로 페이지가 전개됩니다.

그 아래 사진은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을 설명하는 페이지의 기본 뼈대입니다. 순서는 '동물이름 - 밑줄 - 인덱스 - 동물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 밑줄 두 개 - 해당 동물 중 남극에 서식하는 세부적인 종 설명 - 밑줄 두 개 - 작성 년월과 작성자'의 순서대로 페이지가 전개됩니다. 사진과 설명을 보기 쉽게 두 줄로 나누고 설명을 옆에다 적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도감의 컨셉을 따온 부분이고, 세부 종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두 줄로 분리해 강조했습니다. 인덱스를 통해 원하는 같은 페이지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 인덱스의 종류로는 동물에 대한 설명, 세부 종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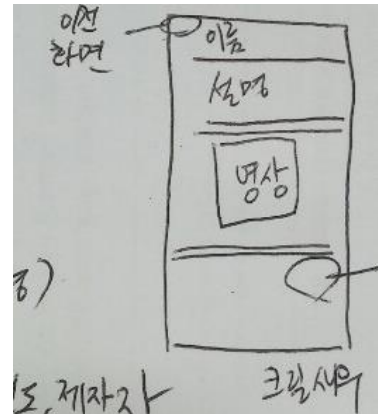


부 종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특히 크릴새우 페이지를 표현한 것인데, 남극 크릴새우는 단일 종이라서 동물에 대한 설명과 종에 대한 세부 설명으로 나눌 수 없어서 간략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크릴새우에 대해 더 잘 배울 수 있는 영상이 있어 링크와 영상을 두 줄로 구분해 삽입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링크가 연결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Index.html을 통해서만 whale.html, penguin.html, seal.html, krill.html로 이동할 수 있고, 각 html에서 index.html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 코드 설명:

<set.css>: 이 외부 CSS코드는 모든 html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스타일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hr>의 길이나 h1과 h2의 정렬과 색깔, table에 들어가는 링크를 제외한 글씨의 색깔을 모두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user.js>: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올 때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 받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창을 이용해 user라는 변수에 사용자의 이름을 받았고, alert를 이용해 인사를 건네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index.html>: html을 사용할 것임을 선언한 후 파일이 깨지지 않게 meta요소와 charset속성을 활용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이름은 남극 생물 도감이고, 외부 CSS와 내부 CSS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내부 CSS를 통해 링크의 글씨 크기와 title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테이블요소의 첫 번째 줄의 글씨 크기와 글씨 색깔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는 table요소의 모든 내용이 가운데 정렬을 이루게 하기 위해 내부 CSS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마다 사용자의 이름을 묻고 제목 아래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body>부분에서는 우선 남극 생물 도감을 제목으로 입력, 밑줄과 사용자 이름을 출력하고, 깔끔한 정렬을 위해 table태그를 활용해 왼쪽에는 서버에 올린 남극 지도 사진을, 오른쪽에는 해당 동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동물 링크는 '가나다'순서대로 입력했습니다. 이 때, 동물에 대한 참고와 그래픽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사진도 링크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 table요소가 종료되면 줄을 긋고 다시 table요소를 활용해 남극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의 사이트 링크와 iframe을 정렬했습니다. 이 table까지 끝나면 줄을 긋고 제작년인 2020년, 제작월인 6월, 제작자인 저의 학번과 이름을 p태그를 이용해 작성했고, 이를 외부CSS를 통해 오른쪽 정렬과 글씨 크기를 정했습니다.

<whale.html>: 이 페이지는 남극의 유명한 동물을 설명하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다른 페이지들을 만들었습니다. Index.html과 동일하게 meta요소를 사용했고, 외부 스타일시트와 내부 스타일시트를 이용했습니다. 내부 스타일시트에서는 <table>요소의 가로 길이와 글씨 크기, 클래스index와 td, 아이디whale의 세부적인 스타일도 명령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넣지는 않았고, 이 페이지의 제목은 남극 고래로 결정했습니다.

<body>내부에는 가장 먼저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사용자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링크 다음에는 <h1>태그를 이용해 동물 이름인 남극 고래를 출력했습니다. 동물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아무래도 정보가 많고, 사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마다 링크를 삽입해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렬을 위해 table요소를 사용했고, 순서가 없는 목록을 이용해 큰 카테고리를 제외한 종들을 표시했습니다. 인덱스가 끝나면 table요소를 종료하고 줄을 그은 다음에 다시 table요소를 선언합니다. 이 요소는 가장 먼저, 이 동물의 큰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이고 이 요소가 끝나면 다시 <hr>을 이용해 두 줄을 긋고 남극에 서식하는 세부 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때도 table요소를 활용해 두 줄로 종들을 나열할 수 있었고, 특징에 대한 설명은 여러 페이지들을 살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입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면 찾아볼 수 있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 링크는 대부분 출처를 그대로 사용했고, 몇몇은 더 많은 설명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설정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다시 두 줄을 긋고 오른쪽 아래에 제작년월과 제작자를 적었습니다.

<seal.html>: 이 다음 페이지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만들어 통일성을 완성했습니다. whale.html과 동일하게 meta요소를 사용했고, 외부 스타일시트와 내부 스타일시트를 이용했습니다. 스타일 시트의 내용은 whale.html과 동일하지만 whale아이디는 seal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제목은 남극 바다표범입니다.

<body>내부에는 가장 먼저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여기서도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사용자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링크 다음에는 <h1>태그를 이용해 동물 이름인 남극 바다표범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whale.html과 같이 내용마다 링크를 삽입해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table>과 <ul>태그를 활용했고, 인덱스가 끝나면 <hr>을 선언해 줄을 그은 다음 다시 table요소를 활용해 이 동물의 큰 카테고리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table>요소를 마무리하고 다시 밑줄을 두 번 그은 다음 남극에 서식하는 세부 종을 table요소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 페이지들을 살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입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면 찾아볼 수 있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 링크는 대부분 출처를 그대로 사용했고, 몇몇은 더 많은 설명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설정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다시 두 줄을 긋고 오른쪽 아래에 제작년월과 제작자를 적었습니다.

<penguin.html>: 위와 동일하게 meta요소를 사용했고, 외부 스타일시트와 내부 스타일시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도 whale.html의 whale아이드를 penguin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제목은 남극 펭귄입니다.

<body>내부에는 가장 먼저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여기서도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사용자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링크 다음에는 <h1>태그를 이용해 동물 이름인 남극 펭귄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hr>을 선언한 후 <table> 요소와 <ul>을 활용해 내용마다 링크를 삽입해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hr>을 선언한 후, <table>요소를 활용해 이 동물의 큰 카테고리인 펭귄을 설명하고 두 줄을 그은 후, 남극에 서식하는 세부 종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도 여러 페이지들을 살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입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면 찾아볼 수 있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 링크는 대부분 출처를 그대로 사용했고, 몇몇은 더 많은 설명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설정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다시 두 줄을 긋고 오른쪽 아래에 제작년월과 제작자를 적었습니다.

<krill.html>: 이 html파일은 앞의 파일들과 가장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극 크릴의 종은 하나뿐이어서 인덱스나 세부 종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위와 동일하게 meta요소를 사용했고, 외부 스타일시트와 내부 스타일시트를 이용했습니다. table요소의 글씨 크기와 가로 길이만 내부 스타일시트에서 선언했습니다.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제목은 남극 크릴입니다.

<body>내부에는 가장 먼저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여기서도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사용자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링크 다음에는 <h1>태그를 이용해 동물 이름인 남극 크릴을 입력했습니다. 밑줄을 그은 다음 크릴에 대한 설명을 table요소를 활용해 적었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와 같이 여러 페이지들을 살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입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면 찾아볼 수 있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생소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iframe을 통해 삽입했습니다. 삽입 후 다시 두 줄을 긋고 오른쪽 아래에 제작년월과 제작자를 적었습니다.

한 학기 소감: 프로그래밍을 이번 1학기 때 처음 배우지만, 정말 쉽고 재미있게 진도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한대로 페이지를 만드니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그런지 인터넷을 할 때, 페이지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이런 코드로 작성했을 것이고 저 부분은 이런 코드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웹페이지 제작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지만, 벌써 한 학기가 끝나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웹페이지 제작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기말고사 과제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이버나 구글 페이지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래

밍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1학기 동안 사이버강의로 수업하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수업을 진행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